

재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데이터로 설계 가능해져

전북교육청, ‘진로진학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난 2월 도내 고교에 배포... 데이터 체계적 관리 중점

수험생을 위한 진학지도를 데이터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 맞춤형 대입 상담을 위한 진로진학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급변하는 대입 제도와 다양한 대입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학지도 정교화와 학교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 올해 2월 도내 133개

고등학교에 배포됐다. 이는 단위 학교에서의 진학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학기별·교과별 내신 등급 △교과 이수 현황 △과목 조합별 평균등급 등을 비교·조회·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졸업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생의 학업 준비도 및 과목 선택을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진학 지도 및 학업 설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상담프로그램이 제공하지 못하는 과목 이수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작동되고, 졸업생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고유번호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진학지도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딤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학교에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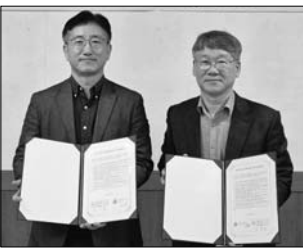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1차 국제 바칼로레아(IB) 특강이 진행된 가운데, 광주부설초등학교 고소이 교사가 IB 월드스쿨에서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개념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탐구로 자라고 사유로 꽃피우고’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1차 국제 바칼로레아 특강
도내 IB 후보·관심학교 소속 교원 등 3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1차 국제 바칼로레아(IB)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IB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 과정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를 중심으로 탐구 기반 수업과 평가 설계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공동체의 교육과정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도내 IB 후보학교 및 관심학교 소속 교원,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광주부설초등학교(IB PYP 월드스쿨) 교사가 IB 월드스쿨에서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개념기반 탐

구 중심 수업·평가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현장의 고민과 실천이 담긴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는 PDF 형태의 자료집 제공, 개인 물병 지참 및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환경을 고려한 ESG 실천도 적극 안내해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군산동고

인재 양성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는 22일 화학공학과·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군산동고등학교와 에너지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소년들의 에너지신산업 관련한 사고력을 증진하고 진로 탐색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에너지 산업 관련 과목 수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고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연구시설 및 캠퍼스 활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과 화학공학과는 교내 우수 연구진,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실 및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군산동고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기전대 취업동아리 발대식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2일 2025년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취업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업동아리는 치위생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응급구조과, 뷰티디자인과 등 9개 학과, 75명이 참여한다. 특히 △직업흥미적성 탐색활동을 포함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목표설정 △역량개발시스템 및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참가 △희망 취업 직종 기업탐방 △직무전문가 특강 및 취업선배와의 인터뷰를 활용한 멘토링 등 동아리별 전공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취업동아리가 전문 직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대학 우수 인재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 라오스에 한국 교육 전파... 창의적·쌍방향 수업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 기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가 주관하는 ‘2025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대는 자체 기획한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현지에 한국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전파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사회는 전국 26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 사회봉사 분야 대표 기관으로, 대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봉사 교육의 질

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봉사단은 여름 방학 중 라오스를 방문해 한국어, 수학, 과학·기술(ICT), 문화,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라오스의 수파누봉대학교 한국어학과 대학생과 파사파파타이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대상과 주제에 따라 맞춤형 수업이 병행된다. 특히 파사파파타이 중등학교에서는 수파누봉대학교 한국어학과 재

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형 교육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은 “전주대학교는 그간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교육적 역량을 이번 라오스 봉사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글로벌 역량을 쌓고,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3회 연속 선정 1200만원 지원금 확보... 베트남 잘라이성 일대서 활동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가 주관하는 ‘2025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3회 연속 선정, 1,2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기획력과 실행 역량이 핵심 평가 요소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이번에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며, 국내 대학 중 꾸준히 국제봉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봉사단은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간 베트남 잘라이성 일대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산림치유과, 동물보건과, SNS영상콘텐츠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 현지 소수민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환경 등 전공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가현 KOICA&해외봉사센터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대학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직접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단순한 체험을 넘어 깊이 있는 국제협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봉사는 학생들에게 세 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현지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노인체력증진 아카데미 선정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노인체력증진 아카데미’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생활체육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과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6개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뉴스포츠 △건강기능체력 △활력 UP 댄스 △라지타구 △건강워킹 △심박항진제 등이다. 특히 프로그램 시행 전·후 체력 측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변화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향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업은 생활체육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남권역 창업 생태계 주도 역량 입증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2024년 연차 평가 ‘A’ 등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업중심대학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탁월한 창업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창업중심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실적, 성과, 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호남권역 창업지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에 선정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2년 전북·전남·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을 중심으로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우수평가를 통해 향후 2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됐다. 2024년도 연차평가에서 전북대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실적 △창업기업의 매출 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 △전담 인력의 안정성 등



전북대학교 본부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반적인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지역 창업 생태계와의 유기적인 협력 △참여 창업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등도 우수한 요소로 평가됐다. 평가 관계자는 “전북대 창업중심대학은 실질적인 성과와 완성도 높은 운영체계를 갖춘 모델로서,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한다면 보다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미래학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진행

전북교육청, 6월 27일까지 총 146개교... “학교 특성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27일까지 전북미래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74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32개교 등 모두 146개교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돕고, 전북미래학교 과제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고등학교 및 IB 학교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가,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점검단계에서는 각 학교가 운영 개요를 준비하고, 현장지원단은 운영계획서와 자율과제 운영방안, 사전 점검표 등을 철저히 분석한다. 이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과제 수행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도울 것”이라며 “전북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